

청주교대신문

The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ess



배움과 나눔, 실천을 통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제293호 2024년 6월 3일(월) 발행인 한대희 주간 박민석 편집국장 이가화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

2024 청주 어린이날 큰 잔치

“기억과 공감으로 만드는 안전한 세상!”



2024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 체험 마당

사진 출처 - 윤리교육과 인스타그램 계정

지난 5월 5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대강당과 광장에서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렸다. 2024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5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다. “금수강산 이어나갈 새싹이라네”라는 주제로 제102회 어린이날을 축하하고자 29번째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렸다. 행사는 여는마당, 공연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놀이마당, 장터마당, 닫는마당 등 50여 개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2024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 준비위원회는 주관단체, 참가단체, 후원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주관단체는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며, 참가단체는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청주북부초등학교, 충주남부초등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청주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평동떡마을, BR뇌교육, 수곡중 ‘댄싱북’, 국가대표MAS 태권도장,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처, 충북국학원, 성화초등학교 댄스부 등이다. 후원단체는 청주시, 청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지원청, icoop자연드림, ㈜디자인 봄날, ㈜드림커뮤니케이션이다.

주/요/기/사

6·7면 기획

아동문학 추천



9면 학내

2024 체육대회

24면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의 시대



29면 사회

케이팝 이모저모

⇒31면 독자 이벤트♣

재미있는 십자말풀이 풀고
문화상품권 받아보세요!

10시부터 11시까지 이루어지는 여는 마당은 맞이하기, 미아보호소 안내, 교통 안전지도를 시작으로 여는 공연인 ‘어린이선언 102주년 축하 타악 댄스’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어린이날 축하 공연 ‘얼씨구 좋다 신명나는 길놀이와 함께 기념식(어린이날 축하 인사, 어린이 현장 낭독)으로 채워졌다. 마지막 다 같이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며 공연 마당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시작된 공연 마당의 첫 번째 순서는 어린이 태권 퍼포먼스 공연이 차지했다. 20여분간 진행된 태권 퍼포먼스 공연에 이어 두 번째는 어린이날 102주년 축하 타악 댄스였다. 이어서 어린이날 축하 기타 공연 ‘딩가딩가 똥똥똥똥’ 공연과 성화초등학교 어린이 댄스 공연 ‘우리 함께, 하자!’ 공연이 무대를 채웠다. 다음 순서는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았던 ‘어린이 노래자랑’이었다. 오후 12시 4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이어질 무대를 위해서 어린이 참가자들은 오후 12시부터 행사장에 도착해있었다. 청주지역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으며, 참가 신청은 4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루어졌다. 신청곡은 동요로 반주 MR만 사전 제출하면 무대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참가자가 무대를 빛내주었다. 마지막 순서로 청주교육대학교 밴드 동아리 ‘티쳐스’의 어린이날 축하 밴드 공연인 ‘꿈나라 별나라’가 무사히 마무리되며 공연 마당도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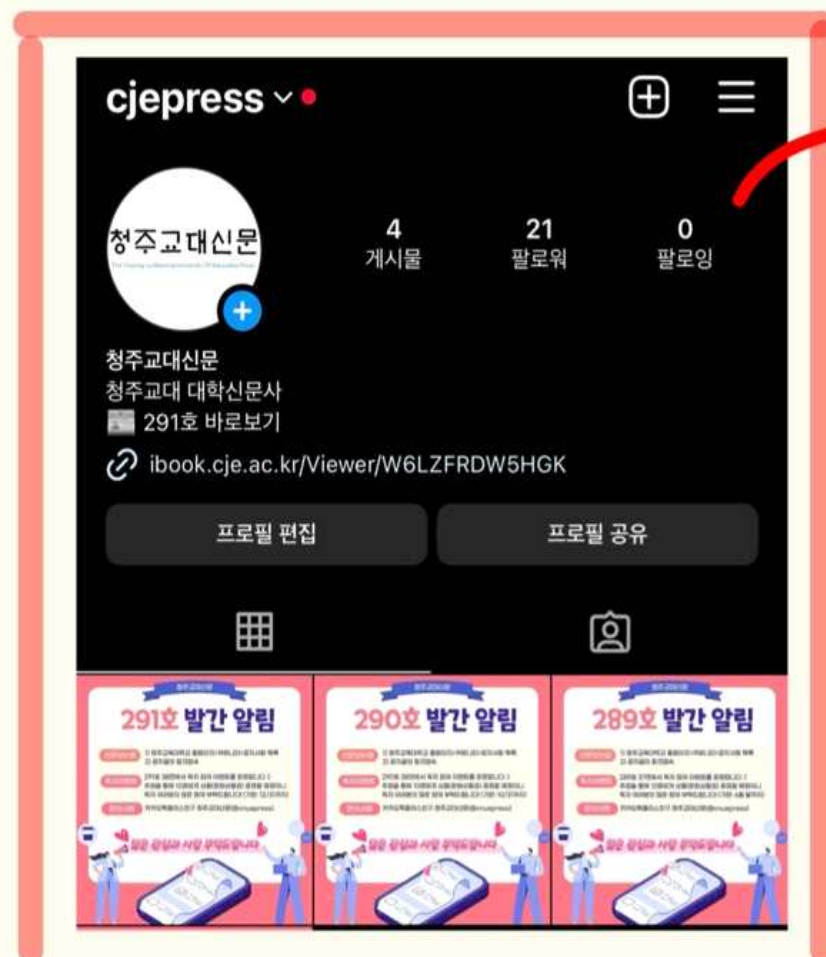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여는 마당과 공연 마당이 진행되고 있을 때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앞에서 체험 마당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청주교육대학교 각 학과와 학생회, 다양한 단체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무료로 즐길 수 있었다. 내가 만드는 솜사탕 부스에서는 어린이가 솜사탕을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 있게 체험이 진행되었고, 나만의 화분만들기 부스에서는 화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솜사탕과 화분 뿐만 아니라 클레이 비누, 한글 팔찌, 지구지킴이 가방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활동도 준비되어 있었다. 만들기에 자신 없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터틀봇을 이용한 미로찾기, VR 체험, 포토존, 에너지 컬러로 알아보는 우리 아이 두뇌 성향 등의 테스트까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리교육과에서 진행한 푸른달 닷새 말랑말랑 지비츠 세상!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클레이를 이용해 크록스 신발을 꾸밀 수 있는 지비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일반 고무 신내화보다는 크록스 신발이 더욱 자주 보인다는 점을 생각하여 진행한 행사였다. 푸른달 닷새는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순우리말로 나타낸 것에 의의가 있다. 윤리교육과는 10시부터 11시 30분 첫 번째 타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인 두 번째 타임, 그리고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세 번째 타임으로 총 3타임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60인분, 80인분, 60인분 클레이 지비츠 만들기 준비물을 준비했다고 한다. 윤리교육과의 한 학생은 “200명의 어린이가 지비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곳은 날씨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주어 뿌듯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023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에 이어 올해 2024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에도 비가 내렸다.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자들과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우산을 써야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행사를 즐겼으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박진아 기자

신문사 인스타그램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cjepress를 검색해보세요!

신문사 인스타그램이
있대!

오 대박!
팔로우 해야겠다!

연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 교사와 학생 모두 힘들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출처- 펜N마이크

지난 5월 26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전인 24일 충남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이후로 두 번째 폐지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지, 그리고 이 폐지를 둘러싼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우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여러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아 조합한 것으로 노동 단체, 성소수자 인권 단체, 여성 인권 단체, 장애인 인권 단체 등이 포함된다.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서울, 광주, 충남, 인천, 제주 등 6개 지역에 도입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헌법의 교육권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사가 징계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의 항목을 기반으로 교사를 신고하면 교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징계를 당하며 피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육진경 교사님의 칼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녀는 2016년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일방적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6개월을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결국 3차 답변서에 인권침해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분이 찢찢했다’라는 것이었다 한다. 그리고 ‘구두 사과 권고’라는 징계가 내려왔는데 정작 그녀는 신고한 학생을 알 수 없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사는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한 결과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런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소한 문제부터 그 정도가 심해 교사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형성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서이초 사건으로 불리는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위협으로 목숨을 끊은 교사 사건, 그리고 허위 미투 운동으로 성추행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송00교사 사건 또한 현재 교사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한국 교원 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출처- 한겨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 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거스르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키기 불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학교 자치 규칙보다 상위개념으로 교사의 학교 수업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인권 반대 청소년 네트워크(학반청)는 대표 성명서에서 “건국 이래 가장 정치적인 학생사회, 공부보다 고발을,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하는 교실.”이라며 “통제 주의와 검열 주의가 학생사회를 잠식했다”라고 말했다.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단어에는 성 생활이 전제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성생활을 조장한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상점제, 일부 규율을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다면 실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교사와 학교의 위신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학교의 안정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그들은 교권 하락의 원인이 복잡적이며, 조례의 폐지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대립하지 않고 화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와 학생, 교사, 학부모, 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단순히 학생에게 원인을 돌려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72시간의 천막 농성까지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으며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걱정을 안겨주었는데, “다시 체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적이었던 학교 문화를 바꿔내었다는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교육계의 평가가 있다. 전교생의 성적을 벽보에 걸어둔다던가 무조건적이었던 야간자율학습, 그리고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사고와 태도 등의 부분에서 확실히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사고의 변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사, 학생, 사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이들과 읽어보기 좋은 아동 문학

만화책 중독으로 보는 그림책의 중요성



만화책과 그림책의 차이

사진 출처-(좌)마법천자문, (우)교보문고

‘학습 만화’와 ‘그림책’, 어떻게 보면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 <마법천자문> 같은 책은 대표적으로 지식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학습 만화다. 이에 반해, 미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에릭 칼의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 같은 책은 아이의 사고력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시대에는 교육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어린이 학습 만화책이 발전되어 있고, 만화책은 분명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매체이다. 지루할 수 있는 문화, 과학, 한자 등의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서 어려운 정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학습 만화만을 즐겨 읽는다면 그림책 읽기 지도가 필요하다. 학습 만화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이의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식을 만화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쓰기보다 해학적인 그림과 쉬운 말로 대체하여 표현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있어서 만화는 아주 쉽게 읽히지만 다른 책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려운 글을 읽을 능력을 잃고 계속해서 만화만 읽게 되어 만화 중독에 빠지기 쉽다.

그림책은 아이들의 더 깊은 수준의 이해를 고취하고 다양한 생각의 가치를 뽐낼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림책을 보고 느낀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자주 하면 대화와 소통 능력이 고양되고 말하는 상대와의 원활한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교사나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위해 편한 분위기에서 함께 독서를 하면 좋다. 자연스럽게 좋은 그림책의 기준은 그림책을 다 읽었을 때 아이가 많은 질문이 있게 하는 것이다.

아이의 만화 중독으로 교수나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다면, 아이가 왜 만화책만 선호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된다. 어릴 적 읽기 경험이 부족했다면 아이의 추상적 상상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 글이 많은 책을 보면서 내용이나 모양, 현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 이해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아이 관점에서, 만화를 보니 생각하지 않아도 내용이 이해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또한, 만화가 가지고 있는 과장이나 해학이 주는 재미 때문에 점점 더 만화를 찾게 된다. 다시 말해, 만화를 좋아하게 된 것에는 어릴 적 그림책을 많이 접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순간부터 미뤄왔던 책 읽기를 시작하면 된다.

아이가 그림책을 즐겨 읽게 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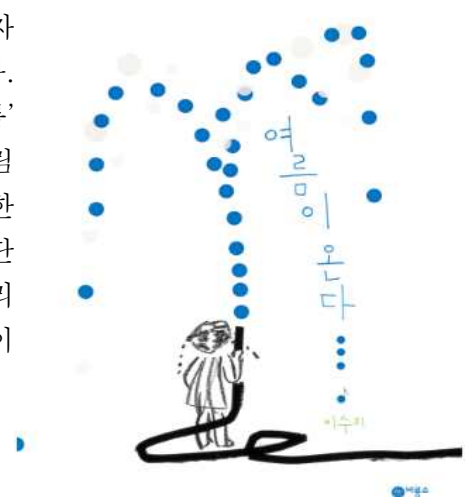
첫 번째로, 만화와 똑같은 주제의 다른 책을 함께 보면서 만화에서 아쉬운 점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만화에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점을 아이가 직접 찾아 보면 아이 스스로 만화의 한계를 뚜렷하게 느끼게 된다. 동시에 그림책을 함께 보게 되므로 조금 더 확장된 독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역사 드라마를 재구성한 만화와 역사 그림책을 함께 읽도록 한다. 만화에 나온 내용과 같은 부분을 그림책에서 찾은 뒤에 어떤 점이 다른지, 만화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등 적극적인 지도가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글과 그림 그리고 서사가 종합적으로 감동을 주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책을 아이에게 많이 접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림책에서 점차 시각 자료가 적은 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함께 돕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아이가 즐겨보는 학습 만화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선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부정적인 시선을 주게 되면, 아이는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느껴 독서 흥미와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아이가 서서히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다. 단순히 책 이야기를 복기하는 것보다 인물, 사건, 배경을 바꿔가며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그림책 소비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뇌 근육을 사용하며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며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방법이 있다. 아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소화하지 못할 때, 그림책을 함께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은 아이의 감정을 치유하고 정서적 교감 능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동문학가의 좋은 그림책을 고르는 방법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은 세계적인 아동문학 상이다. 덴마크의 국제 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에서 2년마다 아동문학 저자와 삽화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상의 이름은 덴마크의 아동문학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이름에서 따왔다. 다른 상과 달리 상금은 따로 없지만, 일명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덴마크의 여왕이 직접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인만큼 수상 기준도 까다롭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의 수상 기준 5가지	
1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글과 그림인가?
2	어린이를 참여시키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돋우며 공감의 시각을 형성하는 작품인가?
3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그리고 그것이 독자들의 문화적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인가?
4	창작 활동 기간 동안 작품은 지속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5	지금까지 일생을 통한 작품 활동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창작 활동으로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은 작가로는 2022년에 최초의 한국인 수상자인 이수지 작가가 있다. 이수지 작가의 수상 도서로는 <여름이 온다>가 있다. 이수지 작가는 글과 그림으로 그림책 창작에 참여했다.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에 모티브를 두고 쓴 도서다. 음악과 그림, 이야기를 결합한 독특한 소재의 그림책으로 소묘가 추가되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성이다. 또한 삽화에서는 충분한 시각적 즐거움, 질감과 알록달록한 색감, 냄새, 소리와 온도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의 나열 등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가득하다. 이 밖에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은 그림책을 아이와 읽어보는 것은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사진 출처-비룡소

신입기자의 다짐



수학교육과 24학번 양정원

"좋은 기사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영어교육과 24학번 임수정

"좋은 세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과 성실히 소통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 24학번 이희원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릇푸릇한 잔디밭에서 울려 퍼지는 교대생들의 함성

새롭게 단장한 잔디밭에서 이루어지는 첫 공식행사, 체육대회의 현장에 가보다



줄다리기 경기를 위해 준비하는 양 팀 (기자 직접 촬영)

지난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제40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청주교육대학교의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2024 체육대회는 A군과 B군, 둘 중 최강의 군이 어디인지를 대결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A군과 B군은 수곡리그가 진행되는 동안 종목별로 같은 군끼리 토너먼트를 진행했다. 토너먼트에 우승한 학과는 본인 소속 군의 다른 과마다 에이스를 최소 1명씩 영입하여 '군 올스타팀'을 만들고, 이렇게 선별된 각 군의 종목별 올스타팀은 체육대회 당일에 결승전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2일간 진행되는 체육대회는 15일에 진행되는 E스포츠 체육대회와 16

일에 진행되는 체육대회 승리 포인트를 모두 합산하여 승부를 치렀다.

16일에 진행된 체육대회 종목으로는 축구, 피구, 계주 달리기, 미션달리기, 줄다리기, 발야구로 구성되었다. 당일 9시부터 약 20분간 개회식이 이루어졌다. 전날 비가 왔지만, 다행히도 잔디가 빠르게 마른 덕분에 체육대회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15분간 스승의 날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날이었던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각 과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줄다리기 예선 이후 본래 일정표상으로는 계주 달리기 예선이 진행되었어야 했지만, 전날 온 비로 인해 잔디가 덜 말라 선수들의 안전 차원에서 피구 결승이 먼저 진행되었다. A군 올스타팀과 B군 올스타팀은 접전을 벌인 끝에 B군 올스타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12시부터 12시 55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뒤에 곧바로 발야구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B군 올스타팀의 선공으로 진행되었던 발야구는 시작부터 치열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B군 올스타팀이 2점 앞서며 3회가 마무리되었다. 3회까지 끝난 뒤 청주교육대학교 댄스동아리인 버터플라이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라이즈의 'Get A Guitar', 프로미스나인의 'Stay This Way'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로써 선수들이 전략을 재구성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는 동안 무대를 선보이며 경기를 관람하는 학우들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일정을 기획한 주최 측의 세심함이 돋보였다. 버터플라이의 축하 무대 이후 발야구 결승전이 이어서 진행되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VAR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발야구 결승전 경기에서 양 팀의 주장들이 판독을 요청하는 일이 생겨 제 역할을 다해주었다. A군 올스타팀의 주자였던 사회과교육과 정재훈 학우의 공을 실과교육과 전희동 학우가 몸을 날리는 수비로 잡아내면서 홈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소중한 한 카운트가 날아가고야 말았다. 이후 A군 올스타팀의 기세가 꺾일 법도 하였지만, A군 올스타팀의 주장이었던 사회과교육과 양형모 학우가 2구째 공을 역전 홈런으로 이끌어내면서 3점 홈런을 만들어냈다. A군 올스타팀은 3점을 내면서 B군 올스타팀을 역전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단숨에 가져왔다. 이후 6회에 B군 올스타팀이 1점을 추가 득점했지만, A군 올스타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발야구 경기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응원가가 울려 퍼져 야구장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 승리로 이끈 A군 올스타팀의 집중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등의 반응을 이끌었다.



축구 결승전 게임 중 A군 올스타팀의 헤딩골의 순간 (기자 직접 촬영)

곧바로 청주교육대학교 풍물동아리인 국악연구회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로 시작한 무대는 북, 장구, 징, 뿔과리로 연주하는 선반 무대인 판굿으로 이어졌다. 이 중 7명의 공연자의 연풍대가 일품이었다. 국악연구회의 축하공연 이후 축구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A군 올스타팀과 B군 올스타팀은 역시나 쉽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다. B군 올스타팀의 선제골로 시작된 경기는 곧바로 A군 올스타팀이 골을 넣으며 한 치 앞을 가릴 수 없는 게임이었다. 이토록 치열한 접전 끝은 연장전까지 이어졌다. 연장전에서 B군 올스타팀이 기적적으로 골을 넣으며 축구는 B군 올스타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후 청주교육대학교 치어리딩 동아리인 하예라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다.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고백으로 주목을 끌었던 QWER의 ‘고민중독’을 포함해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체육대회에 생동감을 물씬 넣어주었다.

이후 진행된 미션달리기에서 A군과 B군은 동점을 기록하며 막상막하의 승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간 기록이 더 좋았던 B군이 승리를 가져갔다. 미션달리기 이후에 진행된 줄다리기와 계주 달리기 부분에서 모두 B군이 승리를 가져가며 이번 체육대회의 최종 승리는 B군이 가져가게 되었다. 이로써 올해 체육대회는 큰 부상자없이 마무리되었다. 올해는 특별히 과대항전이 아닌 군 대항전으로 이루어져 다른 과와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호평이 자자했다. 잔디밭으로 새로 단장한 운동장에서 이루어진 이번 체육대회 행사는 “낭만 넘치는 대학교의 체육대회 그자체였다.” 등의 평도 있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밤낮없이 노력해준 학생회 소속 일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예지 기자

청주교육대학교 E-스포츠 체육대회 ECC 개최

A 군과 B 군 중 최강의 군은 누가 차지했을까



지난 5월 15일 진행된 청주교육대학교 E스포츠 대회 ECC. 각 군 대표들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사진출처 - 청주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5월 15일 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2024 청주교육대학교 E스포츠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체육대회의 전야제인 대회로 A 군과 B 군 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각 군의 대표가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내 최초로 제40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주)이 스포츠코리아 게임회사의 협력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FC 온라인 세 종목에서 각 군의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승부가 진행되었다. 대결 중간 쉬는 시간에는 청주교육대학교 댄스동아리인 버터플라이의 축하공연도 이루어져 볼거리를 더했다.

첫 번째 경기는 FC 온라인의 최강을 가리는 A 군과 B 군의 승부였다. A 군 대표 '레알 막 드리블'과 B 군 대표 '용리'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승자는 A 군 대표 '레알 막드리블'이었다. 이들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멋진 경기력을 앞세워 B 군 대표를 3-0으로 꺾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9골을 득점하는 동안 2골밖에 내주지 않은 완벽한 운영을 보인 A 군 선수들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으로 게임을 쉽게 이끌어갔다. 첫 게임을 승리로 장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한 A 군이었다.

A 군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A 군 대표로 선발된 '도윤재와 범서준' 팀은 두 번째 게임인 오버워치에서도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B 군 대표 '육체미'팀을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주었다. B 군은 고군분투하며 리드를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A 군을 결국 뚫어내지 못하며 결국 두 번째 게임도 승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승부는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리그오브레전드로 이어졌다.

마지막 게임이자 이날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도 멋진 승부가 펼쳐졌다. A 군 대표로 뽑힌 '순혈국어과'와 B 군 대표 'P.E'의 대결은 A 군 대표가 총합 2-0 완승을 거두며 끝났다. 1세트 A 군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서포터 쓰레쉬의 스킬이 높은 적중률을 보이며 B 군 선수들을 차례로 정리하며 결국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에서도 오브젝트와 한타에서 대승을 거둔 A 군 선수들은 손쉽게 B 군 진영으로 파고들어 승리를 따냈다.

치열했던 승부의 결과는 A 군의 3-0 완승으로 끝이 났다. 총합 포인트 300점을 미리 획득한 A 군은 5월 16일 진행 예정인 체육대회에서 먼저 한발 앞서나갈 수 있게 되었다. 체육대회의 최종 승리는 어느 군이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우 기자

<일본 교환학생 후기> 일생의 특별한 추억

영어교육과 22학번 최준서



일본 교환학생 시절의 모습을 담은 사진



일본 초등학교에서의 수업 모습

나에게는 학창 시절 로망이 있었다. 바로 해외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일본 고등학교로, 대학교는 미국 대학교를 다녀보고 싶었다. 미국 대학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일본 대학교라도 가고 싶었다. 내가 청주교육대학교에 된 계기도 해외 교환학생 제도가 있다는 점이 컸다. 입학하기 전에 교육대학교들을 비교해볼 때에, 해외 교환학생과 해외 교육실습을 중점적으로 각 교육대학교는 어느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았기도 했다.

사실 내가 오사카 교육대학교 교환학생 모집 공고를 받았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일본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심각하여 우려되기도 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고 싶었던 교환학생이기도 했고 지금이 아니면 못 갈 것 같아 도전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중학교 시절부터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해온 덕분에 일본어 어학 능력은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 수년간 교환학생을 가지 못해 교육대학교 담당 업무 관련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없어 학점 이수 교료를 위해 힘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나의 교환학생이라는 로망이 시작되었다. 사실 나는 일본에 가면 일본 대학 친구들과만 사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대륙으로부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와서 신기했다. 여러 국적의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떨며 놀러가고 하고, 가끔은 각 나라의 음식을 먹으며 매우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과 동아리를 통해 일본 친구들과 친해질 수도 있었다. 일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수업도 진행하며 일본 초등학교와 일본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사범대학교에서 교육대학교로 넘어오면서 교대는 사람이 적어서 대학 느낌이 나지 않고, 교류를 하기에 다소 협소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교환학생을 떠났으며 이는 내 인생 평생의 기억일 것 같다. 오사카 교육대학교의 친구들과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일본에 놀러갈 때마다 만나기도 한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청주교육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일생의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우즈베키스탄 교육실습 후기①>

나도 내가 우즈베키스탄을 두 번씩이나 가게 될 줄은,

수학교육과 22학번 이다현



우즈베키스탄 교육실습 모습을 담은 사진

나는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무턱대고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을 즐긴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2023학년도 하계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교육봉사 공지를 발견하였고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도, 우리 학교에게도 처음이자 생소한 나라에서의 교육봉사였다. 2주 가량의 교육봉사가 나에게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는지, 다녀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온 두 번째 2023 동계 우즈벡 교육봉사 공지를 보고 이전보다 더 망설임 없이 신청했고 다녀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전에는 우즈벡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나는 두 차례 우즈벡 교육봉사를 가게 되었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서 가는 우즈벡 교육봉사의 활동은 학교 수업과 문화 탐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가자, 버디 친구들과 타슈켄트 관광지, 맛집을 돌아다니는 것과 주말에 기차를 타고 가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문화 탐방 활동은 재미있고 기억에 많이 남지만 여기서는 교육봉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쓰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서 팀을 짜고 한국어와 기초 과목(미술, 과학, 실과 등) 수업을 준비해가서 우즈벡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우즈벡은 취업, 한류 열풍, 고려인 등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학교에서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제2언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초등학교가 꽤 있으며 우리가 간 학교에서도 이미 한국어를 배운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를 알아듣는 수준은 아니었고 주변 사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기도 했던 알아듣지도 못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관한 답을 하자면, 우즈벡 현지 니자미 사범대학교의 한국어교육과에 진학 중인 학생들이 버디가 되어 내 말을 전부 바로 통역해준다. 말을 못 알아듣는 학생에게 수업을 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 버디가 알아들어야 하기에 말을 빠르게 해서는 안 되고 한 마디를 뱉은 후에는 버디가 통역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간단한 발표를 시켜도 나는 아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첫 수업을 하기 전에는 가르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의심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이해를 잘했다. 버디 중에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운 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한국어로 가르치는' 수업이기에 번역에 어렵고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버디들이 나의 목소리가 되어주어서 문제 없이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우즈벡의 아이들은 맑고 순수했다. 열심히 준비해 간 수업에 한 아이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으며 말도 안 통하는데 나와 눈이 마주치면 항상 씨익 웃어준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 아이들에게 나의 존재는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서 나도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막바지에는 눈만 봐도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거 같았고 끝까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래서인지 애뜻함은 더 커지는 것 같았다. 한국에서 교사를 준비하는 대학에 다니면서 초등 교사의 지위, 권리에 관한 이슈들로 나도 모르게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우즈벡 아이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눈 녹듯 없어졌고, 어쨌든 나는 초등 교사를 해야한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나도 내가 태어나서 우즈벡이라는 나라를 두 번씩이나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다녀온 이후에는 이 신문에 고작 몇자로 실기에 한없이 부족하게 나를 생각하게 했고 성장하게 했다. 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교대를 다니면서 물 흐르듯 무난히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 자격증을 따고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닌 실패해도 좋으니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경험을 하며 멋진 사람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교과서 속 내용 이외에도 많은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아이들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나에게 우즈벡 교육봉사는 지금까지의 대학 생활 중 손에 꼽을 만한 새로운 도전이며 값진 경험이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우즈베키스탄 교육실습 후기②>

마음이 따듯해지는 나라, 우즈베키스탄

실과교육과 23학번 홍수연

교대에서는 매년 교육실습을 나가고, 여러 봉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아이들을 만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해외에 나가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만나 수업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란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처음 우즈베키스탄 모집 공고가 올라오고 그곳에 갈 것이 확정되었을 때, 새로운 나라에 가서 하게 될 새로운 경험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여행으로 가기 쉬운 나라도 아니었기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큰마음을 안고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다. 나는 당시 도착했을 때 느낀 그곳의 후덥지근한 열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는 일주일씩 총 두 곳의 학교에 가서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다.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갈 사람들과 팀을 나누었는데, 나는 미술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나는 1학년이었기에 수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수업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의 수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에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

갔을 때 현지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নিজ이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통역과 도움 덕에 수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어 교실이 있다는 점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어 교육이 중요해서 학교마다 배울 언어를 선택하는데, 내가 간 학교는 한국어를 선택한 학교였기에 한국어 교실이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고학년 아이들은 한국어를 조금 알고 있었다. 나는 미술수업과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로 써보는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하며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내가 2주간 아이들과 있으면서 느낀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들이 인사를 할 때 선생님과 포옹한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들이 인사를 할 때 포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은 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며 인사할 때 선생님 한명 한명에게 포옹하며 인사했다. 아이들과 매일 포옹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인사하며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더운 날씨임에도 기분이 좋아졌다. 우즈베키스탄의 더위는 생각보다 더욱 뜨거웠다. 하지만 에어컨 없는 교실에 뜨거운 날씨였음에도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그곳의 더위가 따듯하게 느껴졌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추억이 만들어졌기에, 헤어지는 마지막 날에는 괜히 눈물이 나오기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직접 그곳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대한 편견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직접 현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졌던 것이 편견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두 주 동안 그곳만의 따듯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도전을 하는 현지 학생들을 보면서 나의 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따듯한 정과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밝은 미소는 앞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곳에서 경험한 많은 추억들은 앞으로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나아갈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어 교실에서 전등갓 만들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학교

교수 칼럼

수십 년 전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학습의 정의가 기억난다. 그때 들었던 학습의 정의는 그 이후의 경험, 정보, 회상과 뒤죽박죽 섞여서 정확한 기억이라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사전의 정의와 비슷할 것이다. 교육학용어사전(1995)에서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정의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타당하고 알맞은 정의였겠지만, 관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듯 하지만 학습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 배웠던 인지주의 관점에서 정의한 학습은 행동주의 관점의 학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학습까지 포함하는 알맞은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뇌에 있는 인지구조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나 나타나는데, 감각, 경험을 통해 인지구조가 바뀌는 것이 학습이라는 설명은, 행동주의의 정의를 들었을 때의 불편한 생각을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인지구조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불편했다. 인지구조가 있다고 믿으면 편하지만, 인지구조는 정말로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생물학 수업 시간에, 학습한 플라나리아의 몸을 다른 플라나리아에게 먹였더니 먹은 플라나리아에서 먹힌 플라나리아가 학습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신기하면서 엽기적인 실험(지금은 조작된 실험으로 밝혀졌다.)을 들으면서 학습 결과가 인지구조로 몸에 남는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 어떤 분자가 인지구조를 저장하고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지만, 답은 알 수 없었다.

그 후에 상황학습(Lave, 2000) 이론을 접하였다. 상황학습은 학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인 관계의 상황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상황이나 맥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외부인인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 공동체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적절한 상황에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무책임한 설명이 놀랍기도 했지만, 학습의 주도권이 교사가 아니라 상황, 또는 학습자에게 있다는 설명이 매우 놀라웠다. 학습자에 초점을 두고 학습의 정의를 다시 보면,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관점에서 정의한 학습은 학습자를 조정하고 관찰하는 교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였다.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애써서 동기유발을 하지 않아도 과학에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과학영재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습자의 주도권과 자발성에 관심을 가졌다. 영재교육에서 강조하는 창의성은 교사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창의성이 나타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다. 과학영재학생들이 특별하지 않다. 단지 그들은 “과학 하기”를 매우 좋아할 뿐이다. 누구나 주도권과 자발성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면 강력한 학습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기억이 뇌의 특정 부분에 저장된다고 생각했지만, 뇌에 관한 연구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1천~1만 개의 돌기를 다른 신경세포에 뻗어 연결(시냅스)하는 네트워크에 저장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나의 기억은 수억 개의 시냅스가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루고, 각각의 시냅스는 여러 개의 다른 기억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다. 각각의 시냅스는 새로 연결되기도 하고, 더 강하게 연결을 유지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끊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기억은 사실과 경험과 감정을 이루는 시냅스 네트워크가 얹히고, 덮어쓰고, 지워지면서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성인이나 노년기에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시냅스의 연결·강화·끊김은 생명체로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며, 이것을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삶을 늘 학습하는 과정 중에 있다.

뇌에 대해 알아낸 것과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포함하여 학습의 정의를 다시 해 보면, “학습은 증거, 경험, 성찰이 있는 상황에서 신념, 이해, 행동을 의식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Houwer 외, 2013)”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는 이전의 정의를 포함하면서 학습자의 학습 주도권(“의식적으로”)과 변화하는 신경 네트워크의 특성(“수정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진보한 학습의 정의로 보인다.

이러한 정의를 놓고 우리의 학습을 돌아보자. 당신이 경험한 학습,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어떤 학습의 정의에 가까운가? 단순 암기를 추구하는 수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학습자에 초점을 두는 진정한 학습을 추구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일부 강의실은 진정한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변형되었고, 융합·복합 강좌를 포함하여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학교로 가는 길은 멀어 보이지만, 한 걸음을 내디뎠으니 온 대학 구성원이 힘을 합하여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학교로 성장하기를 촉구한다.



과학교육과 장지은 교수님

이번 시험 잘 보면, 공차 사줄게



박진아 기자

“이번 중간고사 평균 90점 넘으면, 공차 사줄게”와 같은 말을 내뱉어 본 적이 있는가? 필자는 불과 한 달 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모인 수학학원에서 이러한 멘트를 날렸었다. 수학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중학생 5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 의지를 타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내가 찾은 방법은 ‘겨우’ 보상이었다. 우선, 결과는 좋았다. 5명으로 이루어진 한 반의 중간고사 점수 평균이 90점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4명이 100점을, 한 명은 90점대 초반을 받아왔다. 직전 학기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전해 받은 나는 솔직히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뿌듯했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해냈고, 학부모와 상담했을 때 들었던 학부모의 자녀 성적 걱정거리를 덜어주었으며, 내가 근무하는 학원의 원장 선생님의 기분도 하늘을 찌르듯 좋아보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나의 기분을 이렇게 찻찻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윤리교육과 22학번이다. 윤리교육과 박대호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듣고 있다면, 윤리교육과 학부생이든, 타과생이든 나의 이 찻찻함의 원인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다. 과연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의 매개체를 ‘공차’와 같은 흥미와 욕구에 기댈 수 있는가? 얼마 전, 필자가 수강하고 있는 [도덕과교육II] 수업의 중간고사 과제로 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보고서의 주제는 정해져있지 않았으며, 수업 중 수업자료 혹은 내용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보는 것이 과제였다. 그 주제로 선정했던 것이 ‘일반적 흥미’와 ‘교육적 흥미’였다. 이 과제를 하며 나는 내가 느꼈던 이 찻찻함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

우선, ‘일반적 흥미’는 학생의 감정, 욕망을 무시하지 않고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외적 동기의 측면과 외재적(실용적) 가치의 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둔다. 반면, ‘교육적 흥미’는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지적 발효, 그로 인한 결과로서의 흥미 발현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내적 동기의 측면과 내재적(본질적) 가치의 문제를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일반적 흥미의 관점에서 듀이J. Dewey는 흥미를 학습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수단, 동기로 간주하였다. 「도덕과 교육방법론」에서는 수업 활동에서 욕망이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흥미를 지지한다면 이는 실패한 도덕 교육이라고 말한다.(이재호 외 2명, 2019, 68)

이는 도덕 교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과를 지도하는 초등 교사를 꿈꾸는 교육대학교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은 수학이니, 욕구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차’를 학습 동기 유발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차적 흥미, 일반적 흥미를 대변하는 ‘공차’보다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시사하는 교육적 흥미를 유발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적절한 보상도 교육적으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공차 5잔을 점보 사이즈로 시키는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얹어지는 내 지갑을 보고 있자니 보상은 사탕 한 알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학우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일으킬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

모두들 ‘자립’하셨나요?



조정우 기자

최근 동기들과 ‘자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본가와 기숙사를 매주 오가고, 여러 방면으로 부모님의 돌봄을 받는 본인들에게 ‘자립’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립이라는 말이 그저 거창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내게 있어서 내가 자립했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며 제목의 질문에 대해 깊게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써본다.

내 인생에서 첫 자립의 순간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첫 ‘빨래’의 순간이었다. 필자는 어쩌면 남들보다 먼저 빨래를 경험했을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시절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며 혼자 이런저런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빨래를 모으는 것부터 세탁을 하고 그것을 개어 정리하는 일까지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걱정이 앞섰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물론 이후에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먼 타국에서 버스든 기차든 무언가를 이용해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이쯤되면 독자 여러분들도 필자가 정의하는 자립의 개념이 별거 없다는 것을 눈치챌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자립은 뭔가 혼자서 대단한 일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면 “자립이라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무거워져. 내가 스스로 다 해내야 할 것 만 같고,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 라고 답변들 하곤 한다. 필자는 10살 꼬맹이 시절 부엌과 싱크대, 세탁기에서 자립을 발견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자립 할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느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해 있는 현재 있는 곳이 달라졌을 뿐이었는데 말이다.

이 글을 우연히 읽는 사람이건 찾아 읽는 사람이건 누구든 자립했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되묻고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부끄럽지만 필자는 인생의 첫 빨래와 설거지를 한 10살 즈음 자립했다고 느꼈다.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이것은 사전적 정의의 ‘스스로 설 줄 알게 되었다.’기 보다는 ‘살아감의 단계, 한 충위를 통과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혹자는 자립한다는 것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 모두 맞는 말이고 필자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자립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도 같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자립한다는 생각 만으로도 한 단계 나아진 나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을 벌며 쓰고, 부모님께 선물을 하는 사소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들은 나를 깨워주는, 나를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씨앗이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글을 마치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감 있게 “난 자립한 사람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 자립하지 못했다고 자신감 없이 말하는 동기들에게도, 이미 충분히 자립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본인의 자립을 미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자신있게 자립심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가짐만으로도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는 진정한 물질적인, 정신적인 자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다. “모두들 ‘자립’ 하셨나요?”

조정우 기자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자란



230308 문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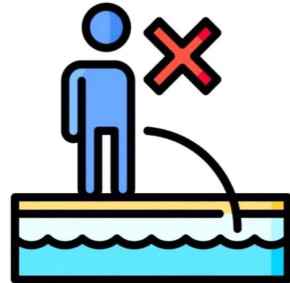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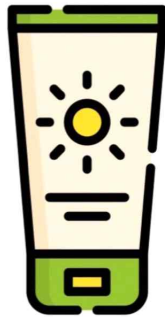
요즘 삶이 힘든가? 행복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가? 이 말에 쇼펜하우어는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한다. 우리의 인생은 딱히 특별하지도, 새롭지도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늘 우주에 하나뿐인 존재라 각인되며 살아왔다. 그런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책을 소개한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를 꼽으라면 단연 쇼펜하우어일 것이다. 현시점, 2024년 5월의 온라인 서점 인문학 베스트셀러 20권 중 1위를 포함한 5권이 쇼펜하우어의 책이다. 흔히 쇼펜하우어를 삶이 팍팍해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철학자라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쇼펜하우어는 비관론자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 이런 말을 하는. 심지어 그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다. 가족도 애인도 없었고, 조국도 없었다. 사람들이 보통 불행하다고 여길 상태를 최선의 상태라 여긴다. 행복하려 하지마라. 행복을 쫓는 순간 불행해진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쇼펜하우어의 말들이 행복을 쫓느라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된다. “다함께 힘든 인생이다. 당신만 유별난 것이 아니다.” 말한다.

쇼펜하우어가 조금 궁금해졌다면,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도서와 편지, 일기 등에서 삶에 대한 통찰과 정곡을 찌르는 인생 조언을 모아 엮었다. 쇼펜하우어가 단권으로 낸 책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엮어 만든 책이라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인간관계, 삶과 죽음, 행복, 사랑, 종교, 소유와 노동 등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쇼펜하우어의 사유를 들여다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처럼 산다면, 현대인의 대부분은 불행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다.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나 할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설명을 조금만 들어봐라. 금방 그의 설명에 매료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강조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이 책에서 해답을 얻을지도 모른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사유는 생각보다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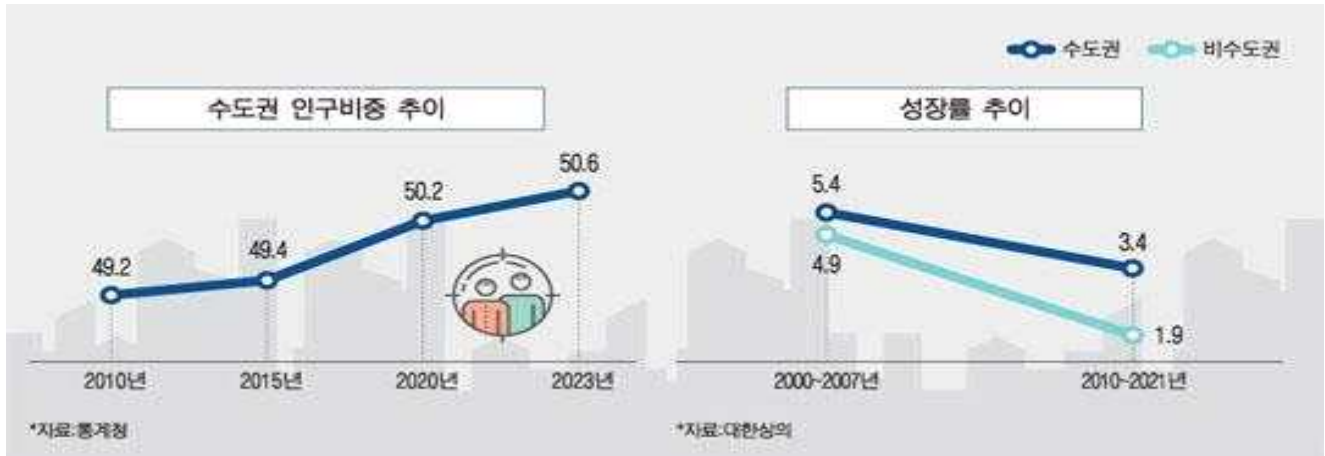
쇼펜하우어는 비관론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평생 죽음을 원하며 살았지만 72세까지 살며 매일 글과 일기를 쓰고, 사색을 하며, 심지어 전쟁이 나자 제일 먼저 도망쳤다. 죽음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고자 했다. 태어났으니 살아야 하고, 삶은 원래 힘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그나마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작은 일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삶이 너무 힘들고, 당신만 못살게 구는 거 같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길 추천한다. 비관적인 그의 말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지도 모른다.

물조심, 일사병 조심하고 웃음 가득한 여름 보내세요



수도권으로 몰리는 학생들, 해결책은 있나?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린 교육 쏠림 현상, 수도권 교육인구 집중 잡아야



수도권 인구비중 추이와 성장률 추이를 보이는 통계자료이다.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와는 상반된 성장률 감소에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출처 - 통계청, 대한상의

최근 들어 ‘수도권 쏠림’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에 따라 부와 성장의 지역 양극화가 커지는 악순환이 각종 수치를 통해 확인됐다. 2022년 집계된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치는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는데 심지어 폐교가 진행되는 학교들도 줄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적 교육역량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 극복과 이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지방 교육 시스템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중등 현장의 교육과정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국의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2019년 274만 7000명에서 지난해 260만 5000명으로 줄었다. 4년 사이에 14만 명이 넘는 학생이 줄어든 것이다. 2028년부터는 수도권 초중고 학생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145곳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지방에 소속되어 있고 작년 대비 31곳이나 증가한 상황이라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교육 쏠림 현상으로 지방일수록 그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라며 변화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도심의 과밀학급과는 반대로 발생하는 지방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교원 부족 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교육 쏠림 현상의 이면에는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디서든 공부만 잘하면 된다.’의 생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이며 지역에 따른 공교육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유명 학군지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넘쳐나는 신도시에는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고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은 학생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게 생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상황이다. 지역별 학령인구 편차에 따른 학교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도시가 계획 될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입 인구를 예상하는지 계산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시 쏠림에 대한 교육 환경 지원책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소멸 현상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대입에 의무 반영 시작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 이미지

사진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지난 5월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가운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 사항이 새롭게 추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전형에 의무로 반영된다. 그 외에 2026학년도 대입의 기존과의 차이점으로 전체 모집 인원 및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한다. 수시 모집 전형의 경우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 전형의 경우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 위주의 전형 전체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기회균형선발의 모집 인원은 전년에 비해 776명 증가하고, 지역균형선발의 모집 인원은 전년에 비해 181명 감소해 전체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은 증가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지난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난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적용된 것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 기록(8호, 강제전학)으로 서울대 입시(정시모집)에서 2점 감점을 받았으나, 높은 수능 점수로 최종 입학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입 불이익이 작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된 조치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에서 학폭으로 강제전학 처분(8호)을 받았으나, 징계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왔지만, 학생부를 위주로 평가하는 수시와 달리 수능 점수를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아예 반영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국 각 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대학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 규정한 불이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학교폭력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폭 가해 학생은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받는다. 대학마다, 대입전형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 혼합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으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에 반해, 교육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 학폭을 더욱 엄격히 조치하고 있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부산교대는 학교폭력 기록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다면, 모든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을 제한 혹은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 그 외의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만 한다. 그러나 감점 폭이 큰 편이라, 학폭 기록이 남은 수험생이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개설된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조치한 결과(1호~9호)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교대 외에도 세종대, 평택대, 한성대 등의 학교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으면 지원 불가 혹은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대다수의 주요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 감점 처리한다. 특히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생활기록부에 남은 수험생부터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시킨다. 수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강한 대처가 이어진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1호(서면 사과)부터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도 있어 학교폭력 이력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1호(서면사과) 조치만 받는다고 하여도 학생부교과전형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한편,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강경책이 학교폭력 처분 수위를 어떻게든 낮추고자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시장만 키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입 불이익을 노린 학교폭력 허위 신고 또한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인 4호(사회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불복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입전형 발표 이후,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경미한 사안에도 일단 변호사를 찾는 학부모들이 늘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받게 되면, 우선 소송을 이용해 ‘시간 끌기’를 해 대입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 또한 늘었다. 정부 학교폭력 대책의 시초가 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녀와 같은 수법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학교폭력 강경책을 내놓은 이후 학교 폭력 신고는 오히려 4년 새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693건이다. 이는 전년(2022년)보다 22건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 1,076건이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 412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고2인 07년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학교폭력이 입시에서 불이익이 커진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연주영 기자

초등학교 체험학습 포기

작년 9월, 노란 버스 법으로 인해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회, 수학여행이 모두 취소되며 논란이 있었다. 노란 버스 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에는 일반 전세버스 대신 안전장치가 구비된 노란 버스만 허용된다는 법이다. 위 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불법이다. 법제처에서는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통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갑자기 공포된 노란 버스 법 때문에 전국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물론 수련회와 수학여행도 모두 취소되며 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9월 안에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전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전세 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시 현장체험학습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봄 소풍 계절이 돌아온 올해 4월과 5월에도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학교들은 늘어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도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교사들이 체험학습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024년 4월, 검찰은 2022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춘천 소재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4월 19일 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법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무죄판결을 호소하는 교육계의 탄원이 이어졌으며, 전교조는 4월 18일 서울 국회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배성제 도 교원단체 총 연합회장은 “해당 교사들이 누구보다 성실히 주의했음에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실에 더 이상 체험학습 진행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4월 18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명의로 체험학습 취소 및 연기 안내문을 발송했다. 학교 측은 취소 사유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사의 불안감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속초의 한 초등학교도 당초 계획되었던 체험학습 추진을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재판 판결 이후로 미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체험학습을 최소화하거나 전면 백지화한다는 계획이다. KB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학교 교감은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며 “안전 매뉴얼을 준수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 외의 울산, 충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2023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교사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80.4%의 교사가 ‘교육활동 진행 시 매우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중 82.9%는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에서 체험학습을 두고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교육청에 조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체험학습 관련 매뉴얼, 안전 인력 배치 등 지침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교육청이 이미 했었어야 하는 것들이다”라고 강조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위험과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우려와 논란이 이어져 왔다. 작년의 노란 버스 법과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만 떠올려봐도 그렇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방식, 주체, 필요성과 관련한 논의가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의 시대가 온다



제주도에 위치한 IB 학교

사진출처-제주 브랜섬홀 아시아

최근 다수의 시도 교육청들이 IB 교육의 도입을 위해 IB 관심 학교를 공모하고, 다양한 해외의 국제학교들과 MOU를 체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IB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약자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만든 국제학교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국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다. 여러 나라의 학교를 자주 옮겨 다니는 학생들이 어디에서도 교육 결손을 입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전부 통하는 최소한의 안정된 교육과정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IB 교육을 통해서는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배워도 어려움 없이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B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IB에서는, IB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탐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계획하여 가르치도록 한다. 즉, 현재 일반 학교에서는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IB 학교는 필수적으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의 학습 주도성과 탐구 정신, 적극적 학습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사고력을 가진 학습자로 길러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IBO는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기본적인 틀과 목표만 제시한다. 학교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게 하고, 학습자상을 두어 학생이 나아갈 바를 주도성, 국제적 감각, 탐구 정신 등으로 명시한다. 또한 탐구에 개념 기반의 학습을 적용하게 하여 전달식,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탈피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시스템과 교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학생들은 적은 노력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어 점차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기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탐구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과목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중학교는 과목별 운영, 고등학교는 집중 심화 운영의 형태이다.

이 IB 교육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점차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지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 등을 거쳐 아시아로 진출한 IB 교육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교육 선진국으로 퍼져 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몇 해 전에 IB 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대구와 제주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는 좋은 선진사례들을 토대로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관심학교를 공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들에서도 IB 전문가를 양성하고 IB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교수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을 가진 교육기관인 IBEC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IB의 적용에 앞서,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현 입시체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점수나 학교 성적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기존의 IB 교육은 수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현 한국의 입시와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11월에 IB 본부가 주관하는 최종평가를 3주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국내 수능은 볼 수 없어 국내 대학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수능 성적과 무관한 수시 전형으로 응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효과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하는 교사들에게도 여러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IB가 정답이 되는 교육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줄 세우기식 입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길러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생 개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이 주목받으며 도입하자는 의견이 늘어나는 것은 교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전국 10개 교대와 제주대, 한국교원대 인원 12% 감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지난 4월 12일,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은 2025학년도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의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7,386명 이후, 2022년 3,758명, 2023년 3,561명, 2024년 3,157명으로 50% 이상 줄어든 것에 비해,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은 지난 2012년 이후로 변함이 없었다. 이 상황이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경인교대 총장 김창원) 등과 함께 논의하여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는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춘천/청주/공주/전주/진주교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총 13개 대학의 3,847명이다. 12개 대학(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춘천/청주/공주/전주/진주교대, 제주대, 한국교원대)에 이번 감축안을 적용하면 457명이 줄어든 3,390명이 된다. 이화여대의 경우, 사립인 데다 모집 인원수가 적어 감축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외되었다. 이번 감축안으로 인해 감축된 교육대학교 학부 입학정원은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했으나, 해당 조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안으로 인한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교육대학의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간다. 교육대학교의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를 진행한다. 각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해당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계획안으로 줄어든 학부 입학정원만큼 교육대학원 정원을 증원 또는 신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대학원(신규 교원 양성이 아닌 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교육과정 운영)의 운영 자율성을 높인다.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개선을 지원한다. 교육대학이 교사 연수 기관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이번 감축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 수 감소와 교대 정원 감축, 그리고 초등 신규 임용 축소를 양의 상관관계로 연결하는 기계적 행정을 지양하고, 오히려 이번 상황을 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증진 등 현장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초등 전체 12만 5,000여 개 학급 중 학급당 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8만 4,000개(202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현실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털이 누렇게 변한 채로 방치된 개들, 펫숍논란

동물 학대 논란 펫숍들 해외에서는 없어지는 추세, 우리나라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개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포항의 한 펫숍 운영자가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포항시가 조사해 본 결과 업소 청소 상태는 물론이고 개의 털 관리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살아있는 생물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판다는 점에서 펫숍을 이전에도 꾸준히 크고 작은 논란이 많았다. 펫숍에서 개와 고양이를 산 연예인들은 악플세례를 받기도 하였으며 한 캐릭터 장난감 시리즈 중 '미니 펫숍'이라는 장난감이 출시하자 인터넷에선 아이들이 반려동물을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하는

찬성 의견과 아이들이 동물을 사고파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으로 찬반 토론까지 하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펫숍(pet shop)은 애완동물과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펫숍은 개와 고양이를 쇼윈도에 진열하여 하루 종일 가두고 뜨거운 조명을 비추며 펫숍 주인들은 개와 고양이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품에 치부하고 진열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아직 애완동물 관리에 대한 법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가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펫숍 운영비를 아끼고자 동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강아지의 크기를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린 강아지들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사료를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요즘엔 동물 한 마리당 하나의 쇼윈도실이 제공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고 협소한 공간 안에 여러 마리를 집어넣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와서 각 동물을 격리하게 된 것도 안타깝지만 개와 고양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터지고 여러 마리가 붙어있는 경우 더 큰 관리비가 들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하나의 사례로 계약서를 쓰고 거래가 끝나면 판매가 된 개가 바로 그날 저녁 전염병으로 죽어도 펫숍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해외에서는 펫숍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미국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미국 외에도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도 펫숍을 통한 반려동물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는 펫숍 운영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유기견 보호소 입양도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 최소 몇 주 동안 보호소에 방문해야 하며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판단한다. 일부 주에서는 자격 검증 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강력한 규제나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동물 학대 예방, 유기 동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열면 반려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 깊어지는 한숨들



사진 31-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나타낸 일러스트

출처: 무등일보

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후,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전세사기의 형태는 '깡통전세'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계속 임대해 나가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사기의 예방책과 대학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예방의 출발은 부동산 중개소와의 거래부터 시작한다. 거래를 할 때는 공인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며, 해당 부동산의 등록 여부와 중개사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예방법이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소유주와 실제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조치인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 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게 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기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세 사기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특히 젊은 세대가 직면하는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정부, 관련 기관, 그리고 개인이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여 전세 사기를 근절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꼼꼼히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 우리 모두가 주거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대학생과 같은 젊은 세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전세사기는 불안정한 직업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겹쳐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도시로 유입되면서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는 주거 환경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세사기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여진다.

전세 사기의 가장 흔한 형태는 가짜 집주인이 등장해 실제 소유주가 아닌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유형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다. 최근 SNS에서는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하던 대학생 K군이 전세사기를 당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하였는데, K군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5천

어버이날, 외면받는 카네이션

“이게 어떻게 6만 9천원”...어버이날 꽃바구니에 시끌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화훼 농가에서 관계자가 어버이날 등을 앞두고 카네이션 출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어버이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5일, 즐거워야 마땅할 가정의 달의 시작점이었던 어린이날, 서울 동대문구에 한숨 소리가 크게 울렸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상으로 카네이션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싱글병글 꽃 바구니를 만들고 있을 줄 알았던 A씨는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예전에는 10만 원이 넘는 꽃바구니 위주로 나갔다면 요즘은 꽃다발이나 1만 원대 작은 바구니를 사 가는 손님이 많다”라고 말했다. “꽃을 아예 생략하거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것 같다”라며 원인을 파악하는 듯 했다. A씨의 꽃가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꽃집, 화훼 공판장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매해 5월이 되면 자녀와 제자들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부모님과 선생님께 선물하던 카네이션의 판매량이 해가 지날수록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은 ‘카네이션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카네이션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성수기인 5월에 분주했어야 할 화훼농가와 꽃집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카네이션 경매량은 절화(뿌리를 잘라낸 꽃) 기준, 3만 5,528단(1단 20송이)을 기록했다. 5월의 시작을 알렸던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시작으로 일요일이었던 어린이날(5월 5일)의 대체휴일에 걸친 이른바 ‘황금 연휴’ 기간이 시작되어 카네이션의 판매량이 예년 수준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됐었다. 하지만 카네이션의 경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5만 6,366단)보다 약 37%가 감소한 것이다. 2022년 같은 기간 거래량은 7만 5,937단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53.2%로 떨어진다.

이렇게 꽃 소비가 줄어든 데다, 국산 카네이션이 중국산 저가 카네이션에 밀린 것도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데 기여했다. 중국산 카네이션은 대부분 국내산 꽃보다 송이당 가격이 2배 가량 저렴하다. 국산 카네이션 1속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6,138원에서 올해 8,636원으로 40.7%가 올랐다. 카네이션꽃 자체의 선호도가 줄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양재동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요즘은 전통적인 카네이션 가득한 바구니보다는 작약이나 튤립, 프리지아를 섞은 바구니를 많이 요청합니다”라고 말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부모님께 선물할 꽃을 준비하기 위해 주문한 꽃바구니가 사이트에 올라와있던 광고 사진과 눈에 띄게 달라 당황스

러워하는 소비자의 사연도 전해진다. 지난 어버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냉정하게 6만 9,000원짜리 꽃다발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 되었다. 광고 사진과 실제 꽃바구니가 달라 혼란을 겪은 소비자 C씨가 작성한 글이었다. 업체의 구매 홈페이지의 ‘구매 전 필독 사항’을 보면, ‘상품 이미지는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 업체가 언급한 ‘최고급형’ 옵션을 선택하려면 상품에 따라 최대 2만 5,000원의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 C씨는 “요즘 아무리 꽃값이 비싸도 너무 다른 사진에 마음이 안 좋다.”라고 호소했다.



어버이날 선물로 C씨가 주문한 꽃바구니의 광고 이미지 사진(왼쪽)과 그가 실제로 받아본 꽃다발의 실물 모습.
출처 - 국민일보

K-POP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 시끌벅적

챌린지의 장본인 지코의 컴백, 르세라핌의 코첼라 진출 등 소식이 끊기지 않는 K-POP



코첼라 무대 중인 르세라핌 (출처- 코첼라 공식 유튜브)

그룹 르세라핌이 4월 13일(현지시각) K그룹 중 세 번째로 미국 대형 음악 축제인 코첼라 무대에 올랐다. 이날 르세라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코첼라)의 사하라 무대에 올라 약 40분에 걸쳐 10곡을 들려줬다.

코첼라에서 르세라핌의 무대는 역시나 케이팝 아이돌 가수만의 대단한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르세라핌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의상과 밴드 모두 규모가 남달랐다. 이날 르세라핌 멤버들은 무대에서 화려한

의상을 착용해 화제가 됐다. 이날 멤버들이 입은 의상은 루이비통 아트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르세라핌을 위해 직접 제작한 것이었다. 더불어 ‘UNFORGIVEN’ 무대는 피쳐링에 참여한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나일 로저스가 직접 연주에 나서면서 무대의 높은 퀄리티에 큰 일조를 했다.

코첼라 무대 이후 르세라핌의 라이브 논란도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관객들의 호응은 역시나 미국 최대의 음악 페스티벌다웠다. 이날 객석은 르세라핌 멤버들 얼굴이 그려진 깃발과 공식 응원봉을 들고 있는 팬들로 가득했는데, 이로써 K-POP의 저력을 실감케 했다. 앞으로도 실력을 갖춘 많은 한국 가수들이 세계적인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같은 달 26일, 지코의 신곡 <SPOT! (feat. JENNIE)>이 발매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발매된 미니 앨범 <Grown Ass Kid> 이후 무려 1년 9개월 만에 정식 발표하는 힙합 장르 곡이라는 점에서 많은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더군다나 블랙핑크 제니가 피쳐링에 참여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실제로 지난 21일 공개된 지코와 제니의 녹음실의 현장을 공개한 영상은 공개 직후 이틀간 국내 유튜브 인기 급상승 차트 순위에서 오르면서 정상급 두 가수의 남다른 화제성을 입증한 바가 있다. 이러한 인기는 음악방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는 아이브와 세븐틴을 꺾고 신곡 <SPOT! (feat. JENNIE)>으로 5월 둘째 주 1위를 차지한 지코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코는 비록 ‘인기가요’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지코가 수장으로 있는 KOZ엔터테인먼트의 보이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대리 수상을 하면서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반가움을 안겼다.

이뿐만 아니라 비투비의 멤버 육성재는 솔로 싱글 ‘EXHIBITION : Look Closely(엑시비션 : 룩 클로슬리)’를 발매하였다. 더불어 김재환, 판타지 보이즈, 트리플에스, 이스트샤인, 야오첸, 라스, 나태주, 티오지가 ‘인기가요’를 통해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로써 K-POP은 5세대 아이돌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울러 끊이지 않고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역대급’ 잠잠했던 산불

젖은 봄비 덕분에... 충북 산불 피해 면적 급감



2015년부터 2024년 1~4월 산불 발생 빈도

사진 출처 - MBN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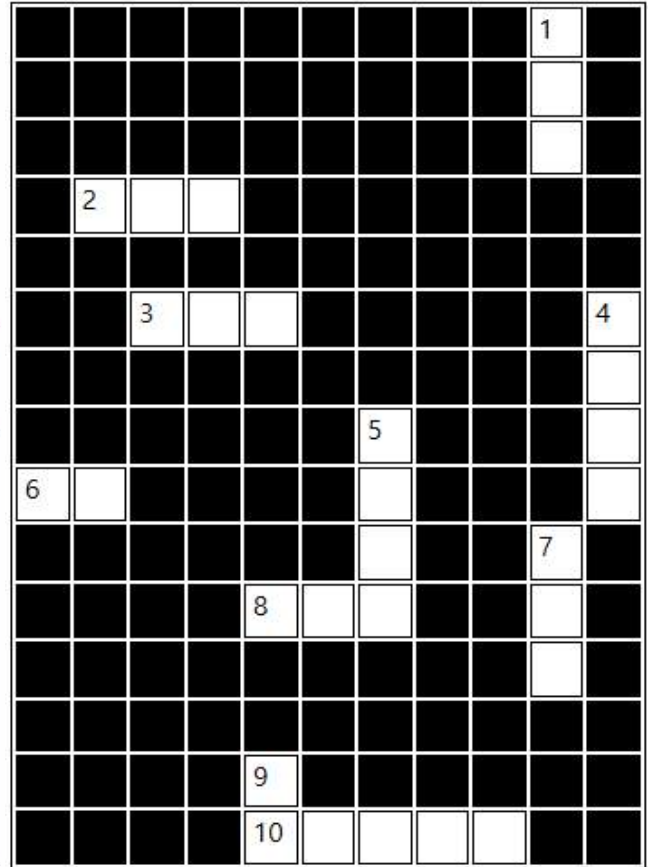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비가 많이 내려 봄의 불청객이던 산불이 눈에 띄게 줄고 피해도 적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169건에 그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은 48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건수와 비교해봐도 큰 차이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겨울과 봄에 눈과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겨울 강수량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값의 2.7배인 236mm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고 3월도 평균값을 웃돌았다.

젖은 봄비가 농작물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산불 예방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5월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인 2월부터 지난 5월 15일까지 도내에서 11건의 산불이 나 2.56ha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 138.12ha보다 피해 면적이 53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 봄에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두렁 소각 2건, 담뱃불 부주의가 1건이었다. 이 외에도 등산이나 산나물 채취 등을 이유로 산에 방문한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낚시객이 텐트 내부에 켜놓은 가스등에 텐트커버가 바람에 날려 불이 옮겨 붙기도 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작업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있었다. 충북의 지역별로는 음성에서 2건이 발생하였고, 청주가 3건으로 산불이 가장 잦았다. 충주·제천·보은·옥천·괴산·단양에서는 각각 1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났다.

산불 피해가 급감했지만, 여전히 충북 이외 지역에서도 산불 피해가 잇달아 일어났다. 지난 4월 13일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64-8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생 1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발생한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었다. 그 다음 날인, 4월 14일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한 야산에 불이 났고, 산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되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4월 18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서대 학생들의 빠른 대처로 자칫 큰 산불이 발생할 뻔한 상황을 막았다. 한서대에 따르면, 레저해양스포츠학과 21학번 오재원 학생, 22학번 이찬영 학생은 이날 오후 2시 55분경 학교 주변 자취방을 나오다 도로 옆 밭에 불이 붙어 연기가 자욱한 것을 발견했다. 두 학생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을 뿌리며 불을 꺼보려 했지만 불은 계속 번졌다. 이에 이찬영 학생은 119에 신고를 하고 오재원 학생은 자취방에 있던 비상소화기 2대를 가져와 이찬영 학생과 함께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진화에 나선 지 20여 분이 되자, 소방차와 소방대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두 학생을 도와 불을 진압했다.

우산을 챙겨라!

~ 6월의 날씨 ~



〈가로 퍼즐〉

2번-미국 하와이주 가운데 가장 큰 섬. 하와이 왕국의 발상지이며, 관광지로 유명하다.

3번-회전축에 붙은 날개를 전동기로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 여름에 주로 사용된다.

6번-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둘째 철. 봄과 가을 사이이며, 낮이 길고 더운 계절로, 달로는 6~8월, 절기(節氣)로는 입하부터 입추 전까지를 이른다.

8번-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행하는 의식.

10번-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 고종 13년(1876)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다.

〈세로 퍼즐〉

1번-수영하면서 놀거나 수영 경기 따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4번-진나라 때 시황제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긴 장성.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5번-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

7번-어린 햇닭의 내장을 빼고 인삼, 대추, 찹쌀 따위를 넣어서 고아 만드는 보양 음식. 삼복에 보신이 되고 원기를 돕는다.

9번-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거나 강의를 끝마침. 또는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

◎ 독자이벤트 ◎

십자말 퀴즈 정답을 6월 30일까지 [청주교대신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cnuepress\)](mailto:@cnuepress)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주교대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200만 관중 모으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 20G 중 19G 만원 관중 '매진률 95%'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꽉 채운 관중석 (출처-기자 본인)

2024 프로야구가 관중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 빠른 속도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프로야구는 이날 총 관중 수 202만 8,999명을 기록했다. 148경기 만의 200만 명 돌파인데, 이는 126경기 만에 200만 명을 넘긴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다. 전날까지 시즌 누적 관중 수는 194만 3,328명이었다. 이날 서울 잠실구장(2만 3,750명),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1만 2,000명), 인천 SSG 랜더스필드(1만 6,957명), 창원NC파크(1만

7,891명), 고척스카이돔(1만 5,073명) 등에 총 8만 5,671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 이러한 흥행 훈풍을 타고 역대 최다 관중몰이 가능성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2024 프로야구는 개막전부터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난달 23일 열린 다섯 경기 모두 만원을 기록했다. 이튿날에도 우천으로 인해 취소가 된 광주 경기(기아 타이거즈-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네 개 구장의 표가 모두 팔렸다. 이는 아무래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복귀한 한화 이글스가 흥행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다. 한화는 올해 치른 다섯 번의 홈 경기에서 1만 2,000석이 매진됐고, 주중 경기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초반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팬들의 기대치가 높았지만, 이후에 연패가 계속되며 대전의 한화 이글스 파크는 한화의 승리만을 고대하는 1만 2,000석을 꽉 채워 관중들의 열기로 꽉 찼다. 원정 구장에서도 오렌지색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5~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한화 3연전이 매진됐다. 역시나 9일 잠실 두산-한화전에서 2만 3,598명의 관중이 몰렸다. 더불어 총선으로 임시공휴일이었던 10일 경기는 시작하기 전에 입장권이 동났다. 한 구단 관계자는 "날씨가 좋은 봄에 한화를 만나서 다행"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한화의 인기는 그 어느때보다도 호황이다..

한화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구단들도 호황이다. 전통적으로 인기 구단으로 꼽히는 엘지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 모두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새롭게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면서 팬들의 기대치가 높아졌고, 기아는 시즌 초반 단독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더욱이 기아의 김도영 선수는 KBO리그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의 진기록을 세워 기아 타이거즈가 선두를 달리는 데 큰 기여를 한 바가 있다. 또한, 부상을 극복하고 돌아온 기아의 캡틴 나성범, 5월에 타격 폼이 살아나는 소크라테스 등 탄탄한 타격 선을 보여주며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써 역대 최다 관중 돌파 가능성도 있다. 6월이 다가오면서 무더위와 장마가 찾아오는 여름엔 관객 수가 자연스럽게 줄겠지만, 지금처럼 순위 다툼이 치열하게 이어진다면 충분히 이를 넘어 900만 시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범죄도시4’ 1000만 돌파, 다시떠오른 스크린독점 이슈

“‘범죄도시4’가 아닌 다른 영화들은 볼 수도 없어요.”



‘범죄도시4’ 영화 포스터-사진출처-CGV홈페이지

‘범죄 도시 4’는 힘센 형사 마석도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을 컨트롤하는 특수부대 출신의 악역 백창기와 IT회사 CEO 장동철에게 맞서 광수대&사이버팀과 함께 싸우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다.

5월 초 영화 집계에 따르면 ‘범죄 도시 4’는 개봉한지 단 2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24년 2월 개봉한 ‘파묘’에 이어 올해 2번째 천만 영화이다. 따라서 ‘범죄 도시’ 시리즈는 2, 3, 4편이 모두 관객 수 천만을 달성하는 ‘트리플 천만’과 더불어 시리즈 전체 누적 관객 수 4천만 명을 넘기는 대단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지금까지 시리즈 가운데 세 편 이상 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저스’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는 기록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도시 4’의 1,000만 달성에 관하여 긍정적인 시선만 있지는 않다. 물론 영화 ‘범죄 도시 4’의 1,000만 달성이 영화가 재미있고 시리즈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범죄 도시 4’가 세운 기록들에

대해 현재 스크린 독점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범죄 도시 4’는 개봉한지 2주 동안 상영 점유율 81%, 좌석점유율 85%를 유지하고 있다. 상영 점유율보다 좌석점유율이 더 높다는 건 ‘범죄 도시 4’가 더 좌석이 많은 큰 상영관을 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개봉 2주 차까지 주말과 평일 오후 등 소위 말해 영화관 황금시간대에는 영화관의 거의 모든 상영관이 ‘범죄 도시 4’로 도배되면서 관객들의 영화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범죄 도시 4’와 유사하게 스크린 독점 논란이 있었던 ‘어벤저스:엔드게임’은 개봉 11일 만에 관객 1000만을 이루었는데 ‘어벤저스:엔드게임’의 경우 ‘범죄 도시 4’보다 러닝타임이 한 시간 이상 길어 상영 회차가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도시 4’보다 더 빠르게 천만을 달성했다는 건 영화를 한번 상영할 때 객석을 채운 비율이 ‘범죄 도시 4’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범죄 도시 4’는 비슷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일으켰던 ‘엔드게임’과 견주어봐도 실제 객석을 채우는 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스크린과 좌석을 차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바로 이전 천만 영화인 ‘파묘’와 ‘서울의 봄’은 50%대의 상영 점유율을 가지면서도 천만 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와 비교되어 더 많은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범죄 도시 4’를 많이 찾고 소비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외에도 현재 방영하고 있는 ‘쿵푸 팬더4’와 ‘챌린저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시청하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를 원한다. 스크린 독점은 이러한 다양성과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항상 고려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에서 열리는 직지 특별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직지

지난 4월 28일, 독일 오펜바흐에 위치한 클링스포어 박물관에서 직지를 주제로 한 특별전 '직지, 그 모든 것의 시작-한국의 금속활자 빅뱅'이 개막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직지 그 모든 것의 시작-한국의 금속활자 빅뱅' 특별전이 4월 2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오펜바흐 클링스포어 박물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오펜바흐 시장,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현대자동차 유럽 법인 관계자, 박물관 후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가야금 특별 공연, 약과와 양갱을 비롯한 K-디저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문화를 함께 선보이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공공외교의 장을 함께 마련하여 현지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한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의 특별강연과 직지 교육 키트를 활용한 체험 행사도 진행하였는데, 조기 마감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는 작년 9월 개최된 직지 복본 및 한지 유네스코 본부 특별전에 이어 직지 복본을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자리이다.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직지를 소장 중인 기관인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지난 2021년 협력하여 원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지의 원형을 고스란히 재현해냈다. 이것이 바로 직지 복본이다. 직지 복본은 '현재 상태 복본' 그리고 '발간 당시 최초 상태 추정 복본', 이렇게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지 복본 외에도 밀랍 막대, 활자, 가지쇠 등의 금속활자 구조와 관련된 모형, 밀랍주조법과 주물사주조법을 비교한 영상과 사진, 금속활자 인판·영인본, '직지'를 제작할 때 쓰인 한지를 비롯한 다양한 한지 공예품을 포함한 총 60종 이상의 전시품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클링스포어 박물관 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클링스포어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교류하고 협력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금속활자 인쇄술의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됐으며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반 세기가량 앞서서 직지가 간행된 사실을 유럽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클링스포어 박물관 측은 상당한 예산과 공간 제공은 물론 현지에서의 다양한 홍보활동 등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의 모든 내용은 한국어와 독일어가 병기된 것은 물론, 전시 동안에 독일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지 목판 체험, 직지와 한국의 인쇄문화 교육, 책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더해 직지의 내용을 다루는 토크 콘서트도 전시기간 동안 진행된다. 주말에는 한국어와 독일어 전시해설이 동시에 제공된다. 그 외에도 '직지'는 국립독일박물관, 라이프치히 도서관박물관, 뒤셀도르프 인쇄산업박람회(5월28일~6월7일) 등 독일 전역에 전시된다.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협력하여 이번 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클링스포어 박물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오펜바흐시에 위치해 있다. 1900년대 초, 클링스포어 형제가 운영하던 주조소를 모체로 한 박물관이다. 타이포그래피, 캘리그래피, 북아트 등 8만여 점의 다양한 근현대 인쇄 관련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인쇄의 보고'로 손꼽힌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클링스포어 박물관을 비롯해 독일 측 박물관과 지난 2016년부터 세계인쇄박물관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꾸준히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박물관 사이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지난 2022년, 청주에서 독일 클링스포어 박물관과 함께 세계인쇄교류특별전 '한국에 경의를 - 클링스포어 박물관의 보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클링스포어 박물관의 제안에 따라 직지를 주제로 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측의 답방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청주고인쇄박물관 측에서 밝혔다. 또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독일의 마인츠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오는 9월 4일에서 8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2024 직지 축제에서 구텐베르크 인쇄 체험과 서양 활자 주조 체험 등을 결집한 세계 인쇄문화 체험 공간의 구성과 운영을 합의했다.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서양 최고 금속활자본인 '구텐베르크 성서'를 보관하고 있다.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물가 상승으로 '가난의 달' 이 된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비롯한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특히 서울시에는 5월에 열리는 축제만 1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문화의 밤 어린이날 특별행사,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 역사 문화 놀이터, 책 읽는 서울광장' 등 다양한 행사로 풍성한 가정의 달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지갑 사정과 치솟는 물가로 가정의 달을 반기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 선물, 용돈 준비와 가족 외식 등으로 지출이 가장 많은 달로 불리는 탓이다. 특히 높아진 외식 물가는 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 참 가격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60%에 달하는 음식점이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을 인상하였다. 외식이 잦은 5월에 가격을 더 올리는 외식업체도 늘고 있는 현황이다. 외식업체들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외식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직접적인 물가 지표 중 하나이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최근 들어 전체 물가 상승률의 평균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년 가운데 가게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을 보내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5월에는 앞서 언급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이외에도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각종 기념일들이 줄줄이 몰려 있어 가정 경제는 더욱 빠듯해질수 밖에 없다.

이같이 외식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자 물가에 관련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물가 안정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만나 물가 관련 간담회를 연 정부는 외식업체 육성 자금 2배 확대,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 등을 강조하며 외식 업계도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 사이에서 외면받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치솟는 외식 물가에 집밥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SSM 4개의 매출은 전년 대비 8% 늘었다. SSM의 매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이다. SSM은 신선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식품 위주로 매장을 재구성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 퍼진 매장을 활용해 근거리 즉시 배송 서비스 역시 키우고 있어 이러한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물가 상승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결국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을 고려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 가격 인상 카드가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은 신중히 생각할 예정”이라며 “가격을 올렸는데 손님이 더 끊겨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정의 달의 의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높은 외식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서민을 위해 정부와 외식업계가 협력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최소화하며 업계의 건의 사항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할 서민들이 가정의 달을 '가장 힘든 달', '가난의 달'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하루빨리 변했으면 한다.

조정우 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선물을 톡, 마음을 톡.



선물 이미지
사진 출처-핀터레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선물하기 문화가 널리 퍼지며 2019년 3조 3800억 원이었던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거래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계청은 지난해(2023년) 온라인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을 9조 8820억원으로 집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온라인 e쿠폰이 매달 7000억 원 이상 거래되며 전년 대비 34.9%나 성장했다.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올해 선물하기 시장 거래액은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대면 선물하기 커머스는 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이다. 선물을 보내며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메신저 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었기에 많은 학우들이 선물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인기

가 많은 선물들을 알아보고, 실제로 선물했을 때 후기가 좋았거나 혹은 받았을 때 만족스러웠던 몇 가지 선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이용자들이 많이 선물한 배송상품은 1위부터 5위까지 멀티비타민, 립밤, 한우, 바디워시, 망고 순이다. 1위인 멀티비타민은 3만 원 정도의 적당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험생활을 응원하거나 부모님들의 건강을 챙길 때 선물하기 좋은 상품이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선물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 2위인 립밤은 유명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다,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5만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립밤은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일상용품이기에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3위는 5만원 정도의 한우세트이다. 5월이 가정의 달이었다는 점도 순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위는 향수 브랜드의 바디워시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상품이다. 타 바디워시들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점이 오히려 선물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져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5위는 망고였다. 1만 원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를 갖고 있고, 호불호를 잘 타지 않는 실용적인 선물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아 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선물해주기 좋은 상품이다. 많이 선물한 교환권의 경우, 1위부터 5위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케이크 교환권, 카페 상품권, 배달 앱 상품권, 치킨 교환권, 백화점 교환권 순이다. 카페 교환권과 상품권이 1,2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에 맞는 적절한 가격대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일 축하나 응원, 감사 표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이다. 받는 이들의 호불호도 크게 갈리지 않는다. 3위인 배달 앱 상품권은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먹는 자취생이나 대학생들에게 특히 선물하기 좋은 품목이다. 4위인 치킨 교환권 역시 그렇다. 5위인 백화점 교환권은 10만 원권의 상품인데, 후기를 확인해보니 주로 자녀가 부모님께 선물한 경우가 많았다.

보다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외의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고를 수 있는 품목이 넓어지고, 간단한 멘트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카드 디자인도 다양해진다. 네이버 선물하기의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과 연계되어 있어 훨씬 넓은 선택지 속에서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9cm 앱에서는 다양한 디자인과 감성을 가진 여러 패션 아이템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김정인 기자

슬기로운 여름 방학 사용법

치열한 한 학기가 지나가고 어느새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바쁜 삶을 보낸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푹 쉬는 것도 좋지만, 작은 일이라도 지난 방학을 돌아보았을 때 생각나는 무언가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소하지만, 학기 중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들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길이라 생각한다.

구분	원서접수	추가접수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제69회	2024년 1월 16일(화) 10:00 ~ 2024년 1월 23일(화) 18:00	2024년 1월 30일(화) 10:00 ~ 2024년 2월 2일(금) 18:00	2024년 2월 17일(토)	2024년 2월 29일(목)
제70회	2024년 4월 23일(화) 10:00 ~ 2024년 4월 30일(화) 18:00	2024년 5월 7일(화) 10:00 ~ 2024년 5월 10일(금) 18:00	2024년 5월 25일(토)	2024년 6월 5일(수)
제71회	2024년 7월 9일(화) 10:00 ~ 2024년 7월 16일(화) 18:00	2024년 7월 23일(화) 10:00 ~ 2024년 7월 26일(금) 18:00	2024년 8월 10일(토)	2024년 8월 22일(목)
제72회	2024년 9월 3일(화) 10:00 ~ 2024년 9월 10일(화) 18:00	2024년 10월 1일(화) 10:00 ~ 2024년 10월 4일(금) 18:00	2024년 10월 20일(일)	2024년 10월 31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사진출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통째로 반납하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번 방학을 통해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전 기출을 내려받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올린 해설 영상을 통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이번 방학 중의 시험은 딱 한 번 8월 10일(토)에 진행되며, 접수는 7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지역별 시험장 개수와 각 시험장마다 수용 가능한 인원수가 적은 편이니,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싶다면 원서 접수 시작 시간(당일 오전 10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많은 이들의 신년 계획에 꼭 들어가는 영어 공부도 이번 여름방학 계획에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신년 계획에 넣고 아차한 사람이나, 미처 계획하지 못한 사람도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영어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하거나 가점을 주는 영역이기도 하고, 매 학기마다 끊이지 않고 한 과목씩은 등장하는 영어 관련 수업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지루한 사람이라면 집 근처의 영어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혼자서 영어에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여러 영어 관련 어플을 추천한다. ‘스픽’이나 ‘듀오 링고’등의 어플을 이용한다면, 나의 현재 영어 능력을 파악하고 그 레벨에 알맞은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어 회화 연습 또한, 기존에 널리 알려진 전화 영어 외에도 챗GPT 등의 인공지능이나, 스픽 등의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학의 특권이라며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잠드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학기 중과 같은 평범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번 바뀐 생활 리듬을 개학할 때마다 다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한번 좋지 못한 생활 리듬을 갖고 난 뒤에는 개학 후에도 조금만 방심한다면 그 리듬으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다. 하루 세 끼를 제시간에 꼭 챙겨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 만약 그것만으로도 어렵다면, 학기 중 1교시 수업을 위해 강제로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집 주변에서 진행되는 운동, 외국어, 음악 등의 오전 강의를 신청하여 해당 강좌를 위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변에 있는 평생교육원, 국가 소속 스포츠센터 등을 활용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바른 생활 습관과 새로운 지식 또는 기능을 얻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상황을 누릴 수 있다.

연주영 기자

교대생이라면 누구나 취득해야 한다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임용고시 응시시의 성적 유효기간이 폐지된 만큼 빠르게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어렵지 않은 난이도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치른다면,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바쁜 학기 중에 한국사 공부를 하고, 주말 하루를

세상에 없던 작가 김동식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댓글에 ‘개연성이 뭔가요?’라 묻던 낯선 작가 김동식



왼쪽부터 작가 김동식, 그의 소설 모음집 10권

사진 출처-문화포털 인문360, 에스 24

이번에는 김동식 작가와 그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그는 여느 작가와 달랐다. 성수도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계속 이야기를 상상했고 글을 써보고자 하는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짧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처음에 온라인 포털에 ‘글 잘쓰는 법’을 검색해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글을 써내려갔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의 글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참신하고 파격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그는 독자와의 소통이 지금의 그를 있게 했다고 말한다. 그의 댓글에는 “작가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아니라 역할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에 그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틀렸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한 “이 부분은 개연성이 부족해요”나 “어형형이 아니라 ‘그녀는 흐느꼈다’라고 표현해보세요”라는 댓글들에 “개연성이 뭔가요?”라며 오히려 독자들에게서 배우고 소통했다고 한다. 이후 이렇게 색다르고 낯선 그는 세상에 없던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

김동식 소설가의 첫 소설 『회색인간』을 소개해보자면, 단편 ‘회색인간’을 포함한 25여 편의 단편들을 엮은 책이다. 소설 그는 ‘김남우’라는 인물로 다양하게 등장하며 각각의 단편들은 비이상적 상황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나 행동의 양상과 변화되는 모습을 강렬하게 나타낸다. ‘회색인간’은 지구내부인, 즉 지저인들의 부족한 영토를 파라며 한순간에 만 명의 지구인들을 납치해 가며 시작된다. 반항하는 지구인들은 그 즉시 머리가 터져 죽고, 힘들어 땅을 파지 않으면 다른 인간들에게 폭행을 당하며 식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로의 고통, 죽음, 자신의 감정까지 메달라가던 어느 날, 쓰러져 노래를 불러 구타를 당하던 한 여성에게 누군가 빵을 나눠주게 된다. 이후 누군가는 이 처참한 모습을 그림으로, 누군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려 하면서 점점 그들은 인간성을 회복해 나간다. 살아남으려는 의지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되찾은 그들은 더 이상 회색인간이 아니다. 그 이외에도 『회색인간』 속에는 다수와 소수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손가락이 여섯 개인 신인류』, 『식인 빌딩』 그리고 한국판 트루먼 쇼가 생각나는 『444번 채널의 동굴인들』 등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과 한국인들의 정서가 만난 충격적이고 공감되는 묘한 매력의 단편들이 있다.

그의 소설의 특징은 짧고 쉽다는 것이다. 자극적이고 다양한 주제로 쉽게 볼 수 있는 쇼츠형 콘텐츠를 원하는 현대 독자의 니즈와 일치하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의 단편들은 원고지 20매 정도의 분량으로 짧으면 10분 만에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짧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의 비인간적 마음, 메마른 줄 알았던 연대감 등 다양한 감정을 일깨워주는 그의 독특한 필력은 소설을 특별하게 만든다. 대학에 들어와 친구에게 『회색인간』을 추천받은 나는 지금 그의 소설에 매료되어 매주 1권씩 읽어나가고 있다. 너무나 재미있는 그의 이야기는 3권까지 청주교육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독자들 또한 읽어보며 김동식 작가의 상상 속에 잠시 머물러 보는 것을 추천한다.

청주교육대학교 20대 총장 취임해



사진: 한 대희 총장님의 모습. (사진 출처-충청매일)

청주교육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수학교육과 한대희 교수가 지난 7일 임명됐다.

한대희 총장은 "배움과 나눔 실천을 통해 성장하는 80여년의 청주교대 전통을 계승하면서 급변하는 미래 시대의 교육을 이끌어갈 혁신적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청주교육대학교, 8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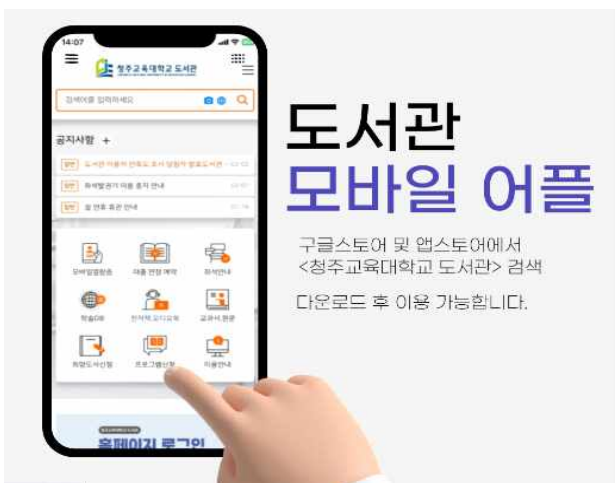


사진출처-충청매일

청주교육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 전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평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학생의 입시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서관 모바일 어플 이용가능



사진출처- 청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청주교육대학교 도서관 모바일 어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어플은 구글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청주교육대학교 도서관>을 다운받아 이용 가능하다.

제3회 예비교사성장워크숍 개최



사진출처-청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오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3회 예비교사 성장워크숍이 충청남도 보령시의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일정 및 참가방법은 청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일반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가화 기자

2023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세입(A)	세출(B)	차액(A-B)	비고
예산액	31,768,794,000	31,768,794,000	0	
예산현액	32,655,113,500	32,655,113,500	0	
결산액	30,501,137,226	28,168,656,296	2,332,480,930	

2.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a=b+c+d)	이 월 액 내 역 (b)				보조금잔액 (c)	순세계잉여금 (d)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332,480,930	1,394,418,150	0	1,394,418,150	0	0	938,062,780

3. 계정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계정	과목		예산액 ①	이월 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관	항							
합계			31,768,794,000	886,319,500	32,655,113,500	30,501,137,226	30,501,137,226	-	-
	이전수입		16,100,152,000	-	16,100,152,000	14,824,839,550	14,824,839,550	-	-
		중앙정부이 전수입	16,100,152,000	-	16,100,152,000	14,824,839,550	14,824,839,550	-	-
	자체수입금		12,128,037,000	-	12,128,037,000	11,291,733,674	11,291,733,674	-	-
		교육활동 수입	6,351,828,000	-	6,351,828,000	5,652,965,758	5,652,965,758	-	-
		전형료 및 논문심사 료	121,000,000	-	121,000,000	86,485,000	86,485,000	-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983,691,000	-	1,983,691,000	1,940,097,725	1,940,097,725	-	-
	자산매각 수입		43,060,000	-	43,060,000	43,110,000	43,110,000	-	-

계 정	과목		예산액 ①	이월 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 -⑥
	관	항							
		이자수입	26,966,000	-	26,966,000	26,965,060	26,965,060	-	-
		제 재 금 수 입	-	-	-	-	-	-	-
		기타수입	3,601,492,0 00	-	3,601,492,0 00	3,542,110,1 31	3,542,110,1 31	-	-
	세계잉여금		3,444,589,0 00	886,319,5 00	4,330,908,5 00	4,288,548,5 02	4,288,548,5 02	-	-
		순 세 계 잉 여금	3,444,589,0 00	-	3,444,589,0 00	3,444,584,9 92	3,444,584,9 92	-	-
		전년도 이 월금	-	886,319,5 00	886,319,500	843,963,510	843,963,510	-	-
	내부거래 및 기 타		96,016,000	-	96,016,000	96,015,500	96,015,500	-	-
		다른 회계 로 부터 의 전입금	96,016,000	-	96,016,000	96,015,500	96,015,500	-	-
국가지원금			18,795,037, 000	886,319,5 00	19,681,356, 500	18,363,687, 100	18,363,687, 100	-	-
	이전수입		16,100,152, 000	-	16,100,152, 000	14,824,839, 550	14,824,839, 550	-	-
		중앙정부이 전수입	16,100,152, 000	-	16,100,152, 000	14,824,839, 550	14,824,839, 550	-	-
	세계잉여금		2,694,885,0 00	886,319,5 00	3,581,204,5 00	3,538,847,5 50	3,538,847,5 50	-	-
		순 세 계 잉 여금	2,694,885,0 00	-	2,694,885,0 00	2,694,884,0 40	2,694,884,0 40	-	-
		전년도 이 월금	-	886,319,5 00	886,319,500	843,963,510	843,963,510	-	-
자체수입금			12,973,757, 000	-	12,973,757, 000	12,137,450, 126	12,137,450, 126	-	-
	자체수입금		12,128,037, 000	-	12,128,037, 000	11,291,733, 674	11,291,733, 674	-	-
		교 육 활 동 수입	6,351,828,0 00	-	6,351,828,0 00	5,652,965,7 58	5,652,965,7 58	-	-
		전형료 및 논 문 심 사 료	121,000,00 0	-	121,000,000	86,485,000	86,485,000	-	-
		사용료 및 수 수수료 수입	1,983,691,0 00	-	1,983,691,0 00	1,940,097,7 25	1,940,097,7 25	-	-
		자 산 매 각 수입	43,060,000	-	43,060,000	43,110,000	43,110,000	-	-
		이자수입	26,966,000	-	26,966,000	26,965,060	26,965,060	-	-
		제 재 금 수 입	-	-	-	-	-	-	-
		기타수입	3,601,492,0 00	-	3,601,492,0 00	3,542,110,1 31	3,542,110,1 31	-	-
	세계잉여금		749,704,00 0	-	749,704,000	749,700,952	749,700,952	-	-
		순 세 계 잉 여금	749,704,00 0	-	749,704,000	749,700,952	749,700,952	-	-

계정	과목		예산액 ①	이월 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관	항							
	내부거래 및 기타		96,016,000	-	96,016,000	96,015,500	96,015,500	-	-
		다른 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96,016,000	-	96,016,000	96,015,500	96,015,500	-	-

4. 계정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계정	정책사업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 액				
합계		31,768,794,000	886,319,500	-	1,500,000 0 △1,500,000	-	32,655,113,500	28,168,656,296	1,394,418,150	3,092,039,054
	인적 자원 운용	15,102,513,000	-	-	1,500,000 0 △1,500,000	-	15,102,513,000	14,067,496,252	-	1,035,016,748
	교육 활동 운영 지원	139,985,000	-	-	-	-	139,985,000	111,279,942	-	28,705,058
	산학 연 활동 지원	12,450,000	-	-	-	-	12,450,000	8,814,000	-	3,636,000
	교육 복지 지원	482,495,000	-	-	-	-	482,495,000	405,488,437	-	77,006,563
	학교 교육 여건 개선	6,366,501,000	809,696,550	-	-	-	7,176,197,550	5,294,497,080	1,394,418,150	487,282,320
	교육 행정 일반	2,318,476,000	76,622,950	-	-	-	2,395,098,950	2,037,247,776	-	357,851,174
	수입 대체 경비	3,949,541,000	-	-	-	-	3,949,541,000	3,103,338,902	-	846,202,098
	보조 금 및	3,396,833,000	-	-	-	-	3,396,833,000	3,140,493,907	-	256,339,093

계정	정책사업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 액				
	지원금									
	국가지원금	18,795,037,000	886,319,500	-	1,500,000 △1,500,000	-	19,681,356,500	16,807,250,080	1,394,418,150	1,479,688,270
	인적 자원 운용	10,452,857,000	-	-	1,500,000 △1,500,000	-	10,452,857,000	9,689,009,290	-	763,847,710
	학교 교육 여건 개선	6,329,251,000	809,696,550	-	-	-	7,138,947,550	5,265,654,530	1,394,418,150	478,874,870
	교육 행정 일반	2,012,929,000	76,622,950	-	-	-	2,089,551,950	1,852,586,260	-	236,965,690
	자체수입금	12,973,757,000	-	-	-	-	12,973,757,000	11,361,406,216	-	1,612,350,784
	인적 자원 운용	4,649,656,000	-	-	-	-	4,649,656,000	4,378,486,962	-	271,169,038
	교육 활동 운영 지원	139,985,000	-	-	-	-	139,985,000	111,279,942	-	28,705,058
	산학 연 활동 지원	12,450,000	-	-	-	-	12,450,000	8,814,000	-	3,636,000
	교육 복지 지원	482,495,000	-	-	-	-	482,495,000	405,488,437	-	77,006,563
	학교 교육 여건 개선	37,250,000	-	-	-	-	37,250,000	28,842,550	-	8,407,450
	교육 행정 일반	305,547,000	-	-	-	-	305,547,000	184,661,516	-	120,885,484
	수입 대체 경비	3,949,541,000	-	-	-	-	3,949,541,000	3,103,338,902	-	846,202,098
	보조	3,396,833,0	-	-	-	-	3,396,833,0	3,140,493,9	-	256,339,0

계정	정책사업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 액				
	금 및 지원 금	00					00	07		93

※ 2023학년도 대학회계 결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일반공지 84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